창간 제2호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 발행 CONDERI(콘데리)

FIRSTPAGE

퍼스트페이지

내일의 창업가·경영자가 오늘 여는 첫 페이지

테크·AI 트렌드

젠슨 황 사태 전에도 흔들리던 엔비디아, 경쟁자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AMD 점유율 2%에서 7~10%로, 자체 칩 만드는 고객도 늘어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7

엔비디아의 위기는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 사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AMD가 인공지능 칩 시장 점유율을 2022년 2%에서 2026년 7~10%까지 끌어올렸고,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은 자체 칩을 만들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금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콜레트 크레스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새 최고경영자가 누가 되든, 그 사람은 지금부터 2년 뒤 반도체 산업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자리에 선다.

이 시점이 좋지 않은 이유는 경쟁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경쟁자인 AMD는 인공지능 칩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2022년 2%에 불과했지만 2026년에는 7~10%까지 올라왔다.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시장에 두 자릿수에 가까운 대안이 생긴 것이다.

더 큰 변화는 고객이 칩을 직접 설계한다는 점이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낮추려고 자체 실리콘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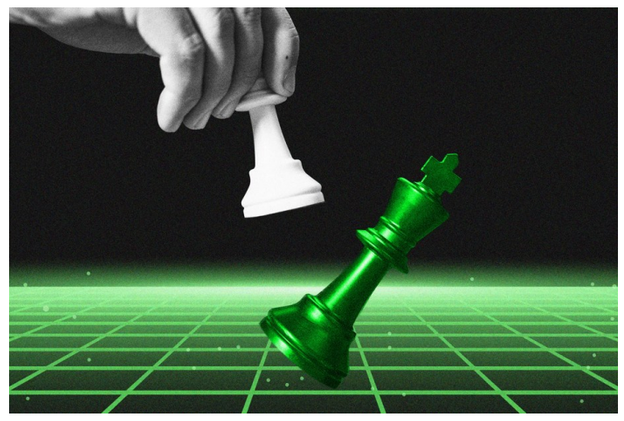
스타트업도 있다. 서브레인스(Cerebras)는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기 위한 대형 칩을 판다. AMD는 최근 모델의 가중치를 칩에 새겨 연산 효율을 높이는 회사 타알라스(Taalas)를 인수했다.

다만 이런 칩을 쓰려면 최신 인공지능 모델에서 작동하도록 코드를 많이 고치는 작업이 따른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엔비디아의 강점인 이유이자, 경쟁자들이 넘어야 할 벽이다. 엔비디아도 지난 2025년 12월 특수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 그로크(Groq)를 인수하며 대응했다.

인공지능 비서와 에이전트가 늘면서 범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도 커지고 있다. 무어헤드가 지적한 부분으로, 엔비디아가 거의 경쟁하지 않는 영역이다.

인공지능 시장이 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 CPU와 추론으로 넓어질수록 엔비디아의 우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황 전 최고경영자는 1993년 개인용 컴퓨터용 그래픽 칩을 만들려고 회사를 세웠고, 2010년대 중반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고 방향을 바꿨다. 그 판단이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반도체 기업으로 만들었다. 지금 회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다음 판단이 누구의 손에서 이뤄지느냐다.



와이어드(WIRED)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와이어드(WIRED)

세 줄 요약

1. AMD의 인공지능 칩 시장 점유율은 2022년 2%에서 2026년 7~10%로 올랐다.
2. 구글·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은 비용을 줄이려고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다.
3. 엔비디아는 최고재무책임자가 회사를 맡은 상태에서 2년 뒤 산업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에 서 있다.

용어 한눈에 보기

점유율 — 전체 시장에서 특정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 실리콘 — 클라우드 기업이 자사 데이터센터용으로 직접 설계한 반도체.

추론 — 이미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로 사용해 답을 내는 과정.

> “황 전 최고경영자는 1993년 개인용 컴퓨터용 그래픽 칩을 만들려고 회사를 세웠고, 2010년대 중반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고 방향을 바꿨다.”
> —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 절반은 지역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았다

79곳 중 42곳 예치율 0%, 주거래도 5대 은행에 몰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7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가운데 이전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은행에 예치금이 전혀 없는 곳이 42곳으로 전체의 53.2%에 달했다. 본사만 옮기고 자금은 옮기지 않은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지방이전 대상 가운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로 이전한 79개 기관의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별 예치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둔 곳은 8개 기관, 10.1%뿐이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31개 기관, 39.2%를 차지했다. 우리은행 12곳, 국민은행 8곳, 하나은행 6곳이 뒤를 이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1순위로 거래하는 기관이 79곳 가운데 60곳, 75.9%다.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금리 경쟁력이었다. 경쟁입찰로 정할 때는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신용도, 예금·대출 금리를 주로 평가했다. 주거래은행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금리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택했고, 이 때문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지역은행보다 앞세운 사례도 확인됐다.

농협은행의 점유율이 높은 배경으로는 전국 영업망에 따른 접근성과 업무 편의성이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2022년까지 광주은행을 거래했지만 지점 창구 인원이 줄면서 이체업무가 어려워져 거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은행은 지역경제 침체로 성장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까지 받고 있다. 수익성이 나빠지면 점포를 줄이고 수도권으로 영업을 넓혀야 하는데, 그러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대는 본연의 역할을 할 여력이 줄어든다. 본사를 지역으로 옮긴 공공기관조차 자금은 다른 곳에 맡기면 이 악순환이 굳어진다.

금융연구원이 2023년 낸 보고서는 2002~2021년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역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 같은 직접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워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은행에 대한 지원은 지역금융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인정하고 정책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지역 내 자금 재투자, 금융 접근성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금융 기초

코픽스 3.62%로 2년8개월 만에 최고, 주담대 최저 5% 넘본다

은행 예금 유치 경쟁이 대출 금리를 밀어 올렸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7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두 달 연속 올라 연 3.62%가 됐다. 202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저 5%대에 이를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월보다 0.19%포인트 오른 연 3.62%로 집계됐다. 2024년 2월과 같은 수준으로 2년8개월 만의 최고치다. 9월에 0.25%포인트 오른 데 이어 두 달간 상승 폭이 0.44%포인트에 이른다.

지난 6월 3%대(3.05%)에 들어선 뒤로는 넉 달 만에 0.57%포인트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15%에서 3.26%로 0.1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연합회는 "10월 시장금리가 소폭 하락했지만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예·적금과 은행채 같은 수신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숫자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고채 금리는 9월 말 4.01%에서 10월 말 3.72%로 크게 내렸다.

그런데 10월 은행 수신액은 전월보다 30조4,000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이 24조1,000억원, 은행채가 15조4,000억원 늘고 수시입출식 예금은 15조5,000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앞세워 예금을 끌어모은 결과가 대출 금리로 돌아온 셈이다.

시중은행은 이르면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새 코픽스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은 6개월 변동금리를 연 4.66~6.06%에서 4.85~6.25%로 올린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도 4.51~5.91%에서 4.70~6.10%로 높아진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준 변동금리를 4.85~6.05%에서 5.04~6.24%로 인상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번 달부터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대출 3억원을 6개월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금리 0.19%포인트 상승은 연 57만원의 이자 증가로 이어진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는 이번 인상으로 다시 벌어졌다.

경제·금융 기초

키트루다 넘보던 중국 항암 신약, FDA 문턱 못 넘었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7

중국 아케소바이오가 개발하고 미국 서밋테라퓨틱스가 들여온 이중항체 항암제 이보네시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암 진행을 늦추는 효과는 확인됐지만 전체 생존기간을 늘렸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FDA는 11월 15일(현지 시각) 서밋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이중항체 항암제 이보네시맙의 폐암 치료제 허가를 거부했다. 전 세계 매출 1위 항암제인 머크의 키트루다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약이다.

이보네시맙은 중국 아케소바이오파마가 만든 약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면역세포의 공격력을 높이도록 설계된 이중항체다. 중국 정부가 저비용 인공지능 모델로 주목받은 딥시크에 빗대 '제2의 딥시크 쇼크'로 평가받을 만큼 중국 바이오 기술력을 상징하는 약으로 꼽혀 왔다.

서밋은 2022년 아케소와 최대 50억 달러(약 6조 7,000억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에서 개발·판매할 권리를 확보했다.

주목받은 이유는 임상 결과였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중국 임상 3상에서 이보네시맙은 암이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키트루다보다 49% 낮췄다. 암이 재발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11.1개월로 키트루다의 5.8개월보다 두 배 가까이 길었다. 아케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중국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다.

올해 6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 학술대회에서는 이보네시맙 연구가 주요 발표 5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중국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가 ASCO 주요 발표에 오른 것은 학회 역사상 처음이었다.

FDA의 판단은 달랐다. 보완요구서에 따르면 전체 생존기간을 늘린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암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확인돼도 환자가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상 참여 환자의 구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글로벌 임상에서 중국 환자 비중이 60%를 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환자는 약 35%에 그쳤다. 아시아 환자 중심의 결과를 미국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거절은 중국 신약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경로에 대한 기준을 보여준다. 효능 수치가 좋아도 어느 집단에서 확인한 것인지가 허가의 관문이 된다. 화이자와 BMS 등이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인 가운데, 미국 생물보안법이 국내 바이오 기업에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단신

지금 알아야 할 짧은 소식

테크·AI 트렌드

AI 안경 부정행위 12건이었는데, 산업인력공단 "6건" 뒤늦게 정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모두 12건이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앞서 알려진 6건의 두 배다. 적발된 12명 가운데 수사를 의뢰한 사람은 9명뿐이다.

경제·금융 기초

트럼프 계좌, 백악관 복귀 후 엔비디아 주식 103번 사고팔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투자 계좌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엔비디아 주식을 최소 103차례 사고팔았고, 거래 규모는 2,700만~9,750만 달러로 추정된다.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 사임 이후 이 거래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테크·AI 트렌드

코인베이스 CEO "AI 에이전트가 인간 수를 넘는다, 2030년 3조~5조 달러 거래"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반 거래를 차세대 핵심 수익원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3조~5조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토큰화 주식, 미국 내 파생상품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광고

CONDERI

청소년 창업교육 · SkillBridge

학교와 기업을 잇는 진로·창업 프로그램

www.conderi.com

contact@conderi.com

창업 스토리

SK이노베이션·큐네스티, AI 사회혁신 스타트업 10곳 실증 성과 공개

186개 팀 지원해 10곳 선발, 특수교육 AI '피어링' 대상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7

SK이노베이션과 큐네스티가 인공지능으로 사회 문제를 푸는 스타트업 10곳의 실증 성과를 공개했다. 올해 공모에는 186개 팀이 지원했고, 대상은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를 줄이는 솔루션을 만든 피어링이 받았다.

SK이노베이션과 큐네스티가 'AI 임팩트 솔루션 데이 2026'을 열고 인공지능 기반 사회혁신 스타트업 10개 팀의 기술 실증 성과를 공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AI 임팩트 솔루션' 사업의 최종 성과공유회로 열렸다.

이 사업은 에너지와 환경, 교육, 의료, 안전 분야의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풀려는 초기 창업팀을 발굴해 기술 검증을 돕는다. 올해 첫 공모에 186개 팀이 지원했고 10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큐네스티는 이들에게 약 4개월간 실증 개발비와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했다. 기술뿐 아니라 사업모델과 사회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하며 개념검증을 진행하도록 했다.

평가는 기술 경쟁력과 개념검증 수행 결과, 현장 적용 가능성, 사업성, 지속가능성을 함께 봤다. 대상은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인공지능 학급운영 솔루션을 만든 피어링이 받았다.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덜고 학생별 특성에 맞춘 지도를 돕는 기술이다.

최우수상은 차량 수요를 예측해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샘튼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희귀·난치암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근거를 찾도록 돕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든 포스트얼라인이다.

상금은 대상 2,0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으로 모두 3,500만원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데모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검증을 봤다는 점이다. 초기 창업팀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기술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만든 기술이 실제 업무 흐름에서 쓰이는지 확인할 기회를 얻는 일이다. 4개월의 실증 기간과 멘토링이 그 자리를 채웠다.

SK이노베이션과 큐네스티는 내년 2차 공모를 추진하고, 성과가 좋은 기업에는 추가 성장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 문제를 푸는 사업은 매출이 늦게 나오는 대신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오래 간다. 초기 검증을 누가 비용으로 떠안느냐가 이런 사업의 속도를 정한다.



벤처스퀘어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벤처스퀘어

창업 스토리

앤트로픽을 세운 일곱 사람, 상장 앞두고 각각 수천억원어치 주식 보유

오픈AI를 떠나 2021년 창업, 19일 나스닥 거래 시작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7

앤트로픽이 11월 19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2021년 회사를 세운 공동창업자 일곱 명은 상장 후 각자 현금 2억5,000만 달러와 180억 달러가 넘는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앤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일곱 명이다. 다리오 아모데이와 다니엘라 아모데이 남매, 톰 브라운, 잭 클라크, 재러드 캐플런, 샘 매캔들리시, 크리스 올라. 네 명은 연구자이고, 한 명은 기자 출신, 한 명은 공공정책 담당, 한 명은 엔지니어다.

이들은 상장 뒤 각자 현금 2억5,000만 달러를 받고, 180억 달러가 넘는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회사를 세운 지 6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20년 말 다리오와 다니엘라 아모데이 남매는 오픈AI의 부사장이었다. 챗GPT로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회사다. 두 사람은 회사의 AI 안전 접근법에 불만을 키웠다. 모델의 능력이 그것을 이해하는 속도보다 빨리 나아가는 세상을 걱정했고, 이듬해 초 앤트로픽을 세웠다.

함께 나간 사람들은 오픈AI의 동료들이었다. GPT-3의 연구 엔지니어링 책임자였던 톰 브라운, 정책 담당 이사 잭 클라크, 계약 연구 컨설턴트 재러드 캐플런, 기술진이던 샘 매캔들리시와 크리스 올라가 합류했다. 이들은 회사가 상업화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안전을 이유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AI 붐에서 가장 먼저 현금을 챙기는 사람이 됐다. 앤트로픽은 오픈AI보다 먼저 증시에 오르는 첫 대형 AI 연구소가 된다. 오픈AI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상장 흥행 여부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 같은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은 AI 산업이 자금 조달과 실적이라는 두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동시에 보게 된다. 창업자 입장에서 이 사례가 남기는 것은 지분의 크기보다 시점이다. 이들은 회사를 세운 지 6년 만에, 그것도 아직 이익을 크게 내지 못하는 단계에서 공개 시장의 평가를 받는다.



CNBC 테크(CNBC)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CNBC 테크(CNBC)

테크·AI 트렌드

광주·전남 직업계고와 반도체 기업, 채용연계 인재양성 맞손

호남 반도체 인력 수요 대응, 현장실습과 정주까지 논의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직업계고, 지역 기업이 호남 반도체 산업의 인력 수요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로 했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 현장실습, 지역 정주까지 한 흐름으로 묶는 협의체가 가동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1월 16일 광주취업지원센터에서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2차 광주·전남 직업계고 채용연계 클러스터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교육청 K-교육통합추진단과 진로진학과·진로교육과,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광주인력개발원, 광주공업고·해남공업고, 그리고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오이솔루션, 우리로, 오텍캐리어, 와이에스피 등 지역 기업이다.

네 가지가 논의됐다. 호남권 반도체 인력 양성,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지원과 지역 정주,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 협력 클러스터 구축, 현장의 의견 수렴이다.

교육청은 기업의 직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과 훈련비·참여수당 지원 체계, 현장실습 연계 절차를 안내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직업계고와 기업 사이의 상시 소통 체계,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관리, 채용 이후 직장 적응을 돕는 멘토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가 겨냥하는 것은 단순한 취업 연계가 아니다. 호남권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술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기업은 다시 사람을 구하는 처지가 된다. 그래서 '지역 정주'가 안건에 들어 있다.

윤양일 K-교육통합추진단장은 "호남권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한 기술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과 채용이 연결된 경로가 생긴다는 뜻이다. 다만 훈련비와 수당이 실제로 얼마나 지원되는지, 현장실습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 구조의 실효성을 가른다.



스타트업투데이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스타트업투데이

단신

경제·금융 기초

대신증권 "SK스퀘어, 내년 최대 4.8조원 주주환원", 목표가는 150만원으로

대신증권이 SK스퀘어가 내년에 최대 4조8,000억원을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는 150만원으로 낮췄다.

테크·AI 트렌드

퍼플렉시티 연 환산 매출 10억 달러, 앤트로픽 5분의 1 비용으로

인공지능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의 연 환산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었다. 대형 데이터센터를 직접 짓는 대신 여러 모델을 조합해 비용을 줄인 전략이 성과를 냈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최고경영자는 같은 규모에 도달하기까지 쓴 현금이 앤트로픽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경제·테크

돈의 흐름과 도구의 변화

3면

테크·AI 트렌드

우버, 협력사 해킹으로 운전자 15만 명 면허정보 유출

AI 클라우드 업체 파이어웍스 내부 계정이 뚫려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7

우버가 협력사 데이터 유출로 운전자 약 15만 명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가 새어나갔다고 통지했다. 문제의 업체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업 파이어웍스AI로, 해커는 그쪽 내부 계정을 이용해 우버 데이터에 접근했다.

우버는 이번 주 캘리포니아와 아이오와 등 여러 주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통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지난 10월 9일 협력사로부터 해커가 내부 계정 정보를 훔쳐 우버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해당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던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다. 테크크런치는 문제의 협력사가 오픈웨이트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하는 파이어웍스AI라고 확인했다. 파이어웍스는 지난달 고객 정보와 일부 비공개 인공지능 데이터셋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생산성 앱 노션과 인공지능 코딩 스타트업 커서도 이번 해킹으로 데이터를 빼앗겼다고 확인했다.

우버는 파이어웍스 환경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감지하는 경보를 켜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커가 파이어웍스 자체의 내부 계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상 계정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우버 대변인은 "운전자에게 보낸 통지는 일부 우버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있던 제3자 업체 파이어웍스AI와 관련된 보안 사고에 대한 것"이라며 자세한 질문은 파이어웍스로 넘겼다. 파이어웍스 대변인은 일부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 있었고 고객 데이터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파이어웍스는 침해를 금전적 동기를 가진 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형언어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판매하려 했다. 아직 스스로 범행을 주장한 조직은 없다.

이번 사고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권한의 범위다.



노코드 도구로 화면을 만드는 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우버는 데이터를 자사 시스템이 아니라 협력사 환경에 두고 있었다.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계정이 뚫리면 원청의 탐지 체계는 작동하지 않는다.

오리건주 검찰총장에 제출한 통지서에 따르면 우버가 정보 유출을 통지한 사람은 모두 14만9,346명이다.

운전면허번호는 다른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에 쓰이는 정보이므로, 해당 운전자들은 금융·통신 가입 내역을 한동안 살펴보는 편이 안전하다.

테크·AI 트렌드

FAA 전국 지상 정지, 20년 된 통신망이 흔들렸다

라우터 교체 작업 중 데이터 폭주, 관제센터 17곳 멈춰…경고는 반복됐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7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전국 지상 정지는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옛 통신망이 데이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감사기관은 20년 전부터 같은 위험을 지적해 왔다.

금요일 오후, L3해리스테크놀로지는 연방항공국 시설에서 새 라우터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 뒤 조종사에게 안전 정보를 보내는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전국 지상 정지가 내려졌다. 2023년 1월 같은 계통 고장으로 항공기가 멈춘 이후 처음이다.

연방항공국(FAA)이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사고는 13일 오후 3시 30분(동부시간)쯤 시작됐다. 데이터가 4~5초마다 1,000건씩 접속을 시도하는 속도로 통신망에 밀려들면서 기존 장비가 불안정해졌다. 항공기 통신과 레이더 정보가 흔들렸고, 22개 항공로관제센터 가운데 17곳과 여러 접근관제소가 영향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8시 15분 운영이 재개됐다.

FAA는 사이버 공격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용의점은 두 곳이었다. 텍사스 아마릴로의 레이더 기지와 아칸소 엘도라도의 무선통신 기지다. L3해리스는 엘도라도에서 새 라우터를 포함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두 지점을 차단하자 망이 안정됐다. FAA는 예방 조치로 같은 기능을 비슷한 라우터 60여 대에서도 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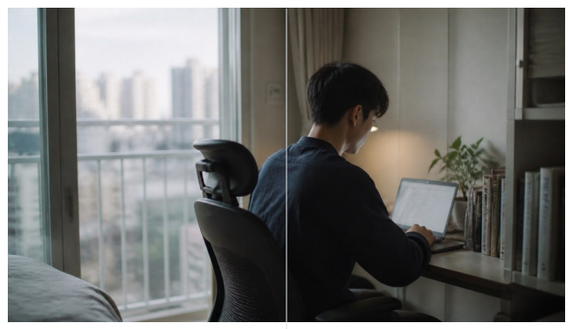
문제는 새 장비가 아니라 옛 장비 쪽에 있었다. FAA는 1980년대 방식의 통신망을 유지하는 데 1년에 10억 달러를 쓴다. 운영 책임자는 2001~2006년에 만들어진 시스코 라우터 2,000여 대를 주니퍼 장비로 계속 바꾸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바꾸는 작업은 70%쯤 진행됐다. 지상 정지 뒤 교통장관은 새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L3해리스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교통 통신을 전달하는 구리와 광케이블 네트워크는 약 4,400개 지점에 걸쳐 있고, 상당 부분이 수십 년 전 기술로 돌아간다. FAA가 인정한 기술 인력은 부족하고 예산도 125억 달러가 모자란다.

감사기관의 지적은 20년 전부터 이어졌다. L3해리스의 전신인 해리스가 2002년 계약을 따르고 4년 뒤, 감사는 사업이 일정에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 보고서는 신뢰성 문제가 항공교통관제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는 통신 장애로 800편 넘는 항공편이 지연됐고, 교통부 감사관은 FAA가 계약업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2012년 2억9,100만 달러를 들여 시작한 음성통신 장비 교체 사업은 2018년 중단됐고, 1억6,000만 달러가 성과 없이 쓰였다.

계약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감사에서 FAA는 2002년 원계약 이후 10차례 연장을 부적절하게 승인해 기간을 57개월, 지출을 15억 달러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청년 창업가. AI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감사관은 편의를 위해 비경쟁 연장을 반복하면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나쁜 결과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부품을 만들던 업체 가운데 하나는 10년 넘게 문을 닫은 상태다.

이번 사고는 통신망 교체가 왜 미뤄지기 쉬운지를 보여준다. 정상 운영 중인 시스템을 멈추고 바꾸는 데는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반면 교체를 미루는 비용은 사고가 날 때 한꺼번에 청구된다.

항공 시스템은 한 지점의 실수가 전국으로 번지는 구조여서, 사전 검증과 이중화에 드는 비용이 사후 수습보다 싸다. FAA는 교체와 점검 일정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정상 운항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 기초

브렉시트 '리셋' 식품 협정, 영국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나

연 50억 파운드 효과 주장, 대신 EU 식품 정책에 미칠 영향력이 관건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7

영국이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 마찰을 줄이는 협정을 맺는다. 정부는 연 50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와 식품 물가 인하를 기대하지만, 그 대가로 유럽연합 식품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어디까지 내줄지가 쟁점이다.

링컨셔주 보스턴의 한 업체는 마크앤스펜서에 납품할 스파게티 볼로네즈를 대량으로 만든다. 아일랜드 매장으로 보낼 물량이다. 플라스틱 팔레트마다 '에이레(Eire)'라는 라벨을 하나하나 붙이는 절차가 따른다.

브렉시트 이후 계속된 일이다.

유럽연합 국가로 식품을 실어 보내는 트럭마다 수백 장의 서류와 수의사 검사가 필요하고, 비용과 지연이 따른다. 마크앤스펜서는 이 때문에 수백만 파운드를 썼고, 2021년 프랑스 매장 11곳을 닫았다. 규모가 작은 수출업체 가운데는 유럽연합으로 보내던 물량을 아예 끊은 곳도 있다. 소시지와 일부 해산물은 수출이 완전히 막혔다.

2020년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협상은 규제 자유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보다 우선했다. 그 결과가 이 마찰이다.

앤디 버넘 총리가 금요일 유럽연합과 서명할 브렉시트 리셋이 이 구조를 바꾼다. 영국 정부는 연 50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와 가계 식품비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링컨셔 소시지처럼 유럽 27개국에 식품을 수출할 길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가다. 유럽연합 협상의 핵심 인물인 햄리시 팔코너 유럽 담당 장관은 "선택"이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영국이 유럽연합 식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식품은 안전 기준과 표시 규칙이 촘촘한 분야다. 시장에 접근하려면 상대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고, 기준을 만드는 자리에서 발언권을 잃으면 앞으로 규칙이 바뀔 때 대응할 수단이 줄어든다.

영국 입장에서 계산은 명확하다. 지금은 마찰 비용을 모든 수출업체가 나눠 부담한다. 협정 뒤에는 규칙을 따르는 비용을 나라 전체가 부담하고, 대신 문턱이 낮아진다. 어느 쪽이 큰지는 협정문의 예외 조항과 검사 절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달려 있다.

총리가 서명하는 문서의 세부가 실제 효과를 가른다.

단신

테크·AI 트렌드

반도체 '호황 지도', 엔비디아 쏠림 줄고 중국 비중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객 지도가 바뀌고 있다. 하이닉스는 최대 고객 의존도를 낮췄고, 삼성전자는 자체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을 5대 고객에 올렸다.

테크·AI 트렌드

AI가 만든 아동 성착취 이미지, 신고 폭증에 탐지 도구 내놓은 오픈AI

인공지능으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급증하면서 오픈AI가 이를 걸러내는 분류 도구를 공개했다. 수사기관이 처리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오피니언·사람

청소년 기자단의 시선과 현장의 목소리

테크·AI 트렌드

반도체 생산성 연 8.5% 늘 때 비반도체는 줄었다, 임금 격차의 뿌리

생산성 10%포인트 차이가 실질 임금 0.9%포인트 차이로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7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1~20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수익 생산성은 연평균 8.5% 늘었지만, 비반도체 부문은 연평균 0.4% 줄었다. 같은 기간 산업 간 임금 격차도 함께 벌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월 16일 발표한 '기업 생산성 분석으로 살펴본 실질임금 정체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는 산업 간 임금 격차를 기업의 생산성에서 설명한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로 기업별 수익 생산성을 추정한 결과다.

2011~20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11.3% 늘었다. 같은 기간 비반도체 부문은 연평균 1.0% 증가에 그쳤다. 최근 5년만 떼어보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2021~2025년 반도체 제조업 생산성은 2023년 업황 부진에도 연평균 8.5% 늘었지만, 비반도체 부문은 연평균 0.4% 줄었다.

비반도체 부문의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분포다. 생산성을 세 등급으로 나누면 2021~2025년 최상위 기업의 생산성 지수도 누적 0.8% 오르는 데 그쳤다. 중위 기업은 2.5%, 하위 기업은 9.7% 하락했다. 원래 잘하던 기업들까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문 것이다.

생산성 격차는 임금으로 이어졌다. 기업 수준에서 생산성이 예상보다 10% 높아지면 1인당 인건비는 1년 뒤 1.1% 높아졌다. 다만 효과는 줄어 4년 뒤에는 0.3%로 낮아졌다. 산업 단위에서는 2021~2025년 생산성 누적 증가율이 10%포인트 높은 업종의 상용근로자 실질 정액급여 상승률이 평균 0.9%포인트 높았다.

이 계산을 적용하면 전자부품 제조업과 나머지 산업의 실질 정액급여 상승률 격차(약 9%포인트)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생산성 차이로 설명된다. 나머지는 물가와 임금 협상, 업종별 수요 등 다른 요인이 채운다.

생산성 부진은 기업의 생존으로도 나타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비반도체 부문에서 2021년 3.2%에서 2025년 6.2%로 두 배가 됐다. 반도체 제조업은 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하위 3분의 1인 산업에서는 한계기업 비중이 평균 7.0%포인트 올랐는데, 그 가운데 6.6%포인트가 생산성 요인으로 계산됐다. 금리 상승보다 생산성 부진이 기업을 몰락시킨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석유화학과 건설, 방송·영상은 생산성과 임금이 모두 부진한 업종으로 꼽혔다.



경향신문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경향신문

반대로 생산성이 오른 산업은 임금도 올랐다. 산업 정책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테크·AI 트렌드

AI 반도체 규제에 연준 의장 발언까지, 나스닥 2.5% 하락

S&P500 7,500선 붕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 국채금리는 하락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7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빌려 쓰는 우회 경로까지 막는 규정을 내놨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공지능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기술주 매도가 확산됐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2% 안팎 하락했다. 나스닥은 약 2.5% 빠졌고, S&P500도 7,500선이 무너졌다. 방어주 성격의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기술주와 소재 업종이 하락을 주도했다.

가장 직접적인 재료는 규제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빌려 쓰는 우회 경로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칩을 직접 사지 않고 다른 나라 서버에서 계산만 빌리는 방식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의 매출 타격 우려가 커졌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공지능 투자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것도 투자심리를 눌렀다. 위험자산을 줄이라는 신호로 읽혔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점도 부담이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높은 기업가치가 그만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매물이 나왔다.

주가지수 선물도 약세를 이어갔다. 다우 선물은 51,600선, 나스닥100 선물은 27,000선으로 내려왔고, S&P500 선물은 약 140포인트 빠진 7,400선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선물도 2,70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반대로 미국 국채에는 매수세가 몰려 금리가 내렸다. 주식에서 빠진 돈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간 결과다. 주식이 급락할 때 채권 금리가 내리는 것은 흔한 흐름이지만, 이번에는 규제와 금리, 실적이라는 세 가지 재료가 겹쳤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SBS뉴스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SBS뉴스

규제의 실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밸류에이션 논쟁을 잠재우는지다. 규제는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 대상과 유예 기간에 따라 기업별 타격이 갈린다.

테크·AI 트렌드

블룸버그 "내년 한국 성장률 3.6%", 반도체가 빠르면 4% 넘는다

반도체 명목 GDP 비중 6%에서 20%로, 한은 긴축 판단이 변수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7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반도체 생산이 예상보다 빨리 늘면 4%를 넘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반도체가 만든 성장이 내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11월 16일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3.8%, 내년 3.6% 성장을 전망했다. 반도체 생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상방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4%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봤다.

전망의 배경에는 지수 계산 방식이 있다.

한국은행은 전년도 가격을 가중치로 쓰는 연쇄가중 방식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낸다. 올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 기업 이익과 국민총소득은 늘지만, 올해 실질 GDP를 직접 끌어올리지는 않는다. 대신 내년 성장률을 계산할 때 반도체 산업의 몫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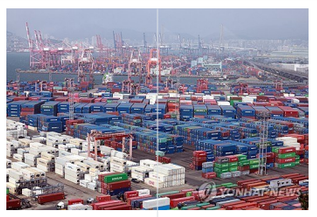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47% 높았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반도체의 명목 GDP 비중이 지난해 6%에서 올해 20%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3.6% 전망은 두 가지 가정을 더한 값이다.

반도체 실질 부가가치가 10% 늘어 성장률을 약 2%포인트 끌어올리고, 반도체를 뺀 나머지 경제가 2% 성장해 1.6%포인트를 보탠다. 새 생산설비 가동과 공정 개선이 빨라 실질 부가가치가 15% 늘면 성장률은 4.6%까지 높아진다.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다. 올해의 높은 가격이 반영된 비중을 내년 계산에 쓰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면 실질 성장률은 오른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가 소비와 고용으로 퍼진 정도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 자체보다 반도체 호황이 내수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가 성장률을 밀어 올린 숫자만 보고 긴축에 나서면, 정작 회복이 더딘 내수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올릴 것으로 보면서도 추가 인상 여부는 내수와 물가의 파급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신

테크·AI 트렌드

앤트로픽 상장, 반도체·클라우드 7개사가 걸린 한 판

앤트로픽의 나스닥 상장은 회사 한 곳의 일이 아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반도체·클라우드 기업들이 공모가로 260억 달러를 넣고, 앤트로픽은 9,000억 달러가 넘는 지출 약정을 안고 있다.

경제·금융 기초

중간선거 후 내렸던 미국 금리·유가, 다시 오른다

미국 중간선거 직후 내려갔던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웃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부정하면서, 금리와 유가를 끌어내렸던 재료가 되돌려지고 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